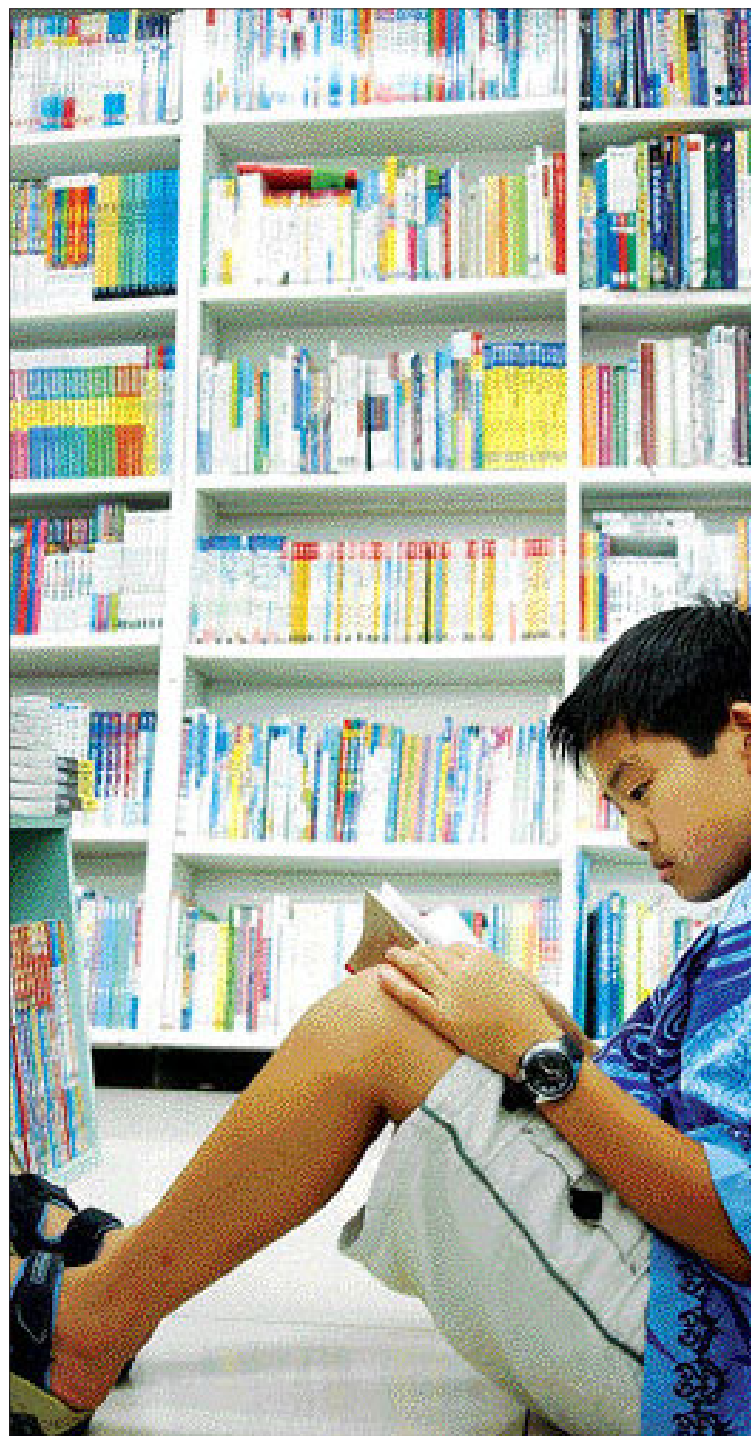


책의 바다 속 풍덩... '불만海, 시원海'

책 읽는 여름방학... 이런 책 어때요



여름방학은 그동안 학교 공부로 미뤄졌던 독서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19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충장서점에서 한 초등학교생이 '독서 심매경'에 빠져 있다.

즐거운 논술여행

세계화와 전통문화(3)

문화창조의 연장 '한글'

언어는 인류의 문화 활동 중 가장 높은 상징 활동에 속한다. 언어가 없어도 생존은 가능하나 사회생활은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철학자 볼프는 "말은 생각의 통로이며, 생각은 마치 언어가 만든 수로를 따라 흘러가는 물과 같다"고 했다.

한글이 창제되고(1443년) 반포된 지(1446년) 550년이 지났다. 유엔의 유네스코는 한글 반포 550주년을 기념하여 1996년을 한글의 해로 정한 바 있다. 또한 유네스코는 1990년부터 문명유치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단체에 상을 주고 있는데 그 상의 이름이 다른 아닌 '세종대왕상(The Prize of King Sejong)'이다. 이

오늘날 지구상에는 약 3천종류의 언어가 존재하지만 완전한 문자체계를 갖춘 언어는 100여 개에 불과하다.

어, 에이, 이' 등 무려 9가지로 발음된다는 것과 비교하면 한글의 우수성이 입증되고도 남는다.

또한 한글의 문자 원리(자음, 모음)는 컴퓨터의 원리(0,1)와도 맞아떨어져 기계화에 가장 적합한 글자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은 국내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물론 세계화 시대의 공용어인 영어의 위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런 훌륭한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지식인일수록 외국말을 남용하며, TV에서는 우리말은

어, 에이, 이' 등 무려 9가지로 발음된다는 것과 비교하면 한글의 우수성이 입증되고도 남는다.

또한 한글의 문자 원리(자음, 모음)는 컴퓨터의 원리(0,1)와도 맞아떨어져 기계화에 가장 적합한 글자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은 국내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물론 세계화 시대의 공용어인 영어의 위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런 훌륭한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지식인일수록 외국말을 남용하며, TV에서는 우리말은

과학적인 우리 글 발전이 세계화 지름길

것은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한 격찬이기도 하지만 한글의 과학성을 세계적으로 공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글은 이미 세계적으로 그 과학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재 접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그 지않다.

한글이 과학적 글자라는 근거로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자음의 경우 제자 원리가 분할할 때의 조음 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고 단계별 가획의 원리를 적용시켜 사람의 말소리에 근접한 합리적인 문자체계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모음도 상형원리와 합성의 원리, 그리고 음양상상의 생성원리에 의해 정밀하게 구성되었다. 기본자는 하늘(天), 땅(地), 사람(人)을 본뜬 것, 합성원리(초출자, 재출자)와 음양(음성, 양성) 기준에 의해 모음체계를 만들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문자자체가 발음기호를 겸할 만큼 문자와 발음(음성)이 거의 일치한다. 영어의 경우 모음의 하나인 'a'가 '에,

발음이 서투르고 더더욱도 영어를 몇 마디라도 구사할 줄 알면 '국제음'으로 대체하는가 하면, 텔러트들은 앞을 다투어 외국말이 새겨진 옷을 입고 나오는 실정이다.

영어는 셰익스피어의 노력에 의해 문학적 번영에 올라섰다. 당시의 지식인들이 400 어휘를 사용할 때 셰익스피어는 2만 어휘를 사용했다고 한다. 글은 얼마나 갖고 달랠지에 따라 표현력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우리가 문화생활의 도구이며, 세계화의 기본 연장이기도 한 우리글을 제대로 연마하지 않는다면 세계화에는 성공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

우리가 문화생활의 도구이며, 세계화의 기본 연장이기도 한 우리글을 제대로 연마하지 않는다면 세계화에는 성공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



황현석

광주대생·초암논술

이카데미 대표강사

광주·전남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번 주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부모들은 한 달이 넘는 방학 기간에 아이들이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할 지 고민부터 되기 시작한다. 캠프나 휴가를 떠나 산 공부를 시켜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날마다 멀리 떠날 수는 없는 일. 학원에 갈 것을 중용하기도 안스럽다.

방학 기간 동안 책과 친하게 지내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 학교 공부에 시간을 빼앗길 일도 없고, 마음 편하게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어 방학이야말로 '책 읽기 좋은 계절'이다. 전문가들은 "방학을 이용해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라"고 조언한다. 특히 어른이 됐을 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동·서양의 고전을 섭렵하는 데는 방학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

현직 국어 및 독서 교육 교사와 도서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권하는 책으로 들어가보자.

◇초등학교 저학년생 = 광주 첨단초등학교 독서교육 교사 김지은(여·30)씨는 "저학년들의 경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창작 동화나 전래 동화, 유인전 등을 읽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헬스터가 사라졌다'(이상 권 이단후 지음·샘터 펴냄)는 헬스터 두 마리를 사들인 부녀가 6개월 간 벌이는 좌충우돌 이야기다.

'딱지 따먹기'(백창우 강우근 지음·보리 펴냄)는 아이들이 만든 시에 가수 백창우가 노래 가사를 붙이고 강우근이 삽화를 넣은 책이다. CD로 동요를 직접 따라 불러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상상력 이슬우화'(홍성국 지음·논인 펴냄)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동화인 이슬우화를 작가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생 = 사교력을 기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과학·사회과학·역사 장르의 책이 좋다. '우리 역사를 바꾼 12가지 씨앗 이야기'(배수원 지음·어린이 작가정신 펴냄)는 작은 씨앗 하나가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킨 사례들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비·밀·공·인상·목화·옥수수·고추·담배·고구마·감자·커피·설탕 등 생활과 밀접한 12가지 씨앗의 이야기가 풍부한 그림과 함께 펼쳐진다.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100가지'(우리기획 편·예림당 펴냄)는 자연·물리적 현상 등에 대한 아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조은수 지음·창비 펴냄)는 김홍도, 신윤복 등 조선시대 화가들의 그림을 바탕으로 조선인들의 생활상을 살핀 책이다.

◇중학생 = 광주 윤림중학교 국어교사 양승현(여·32)씨는 "다양하게 읽는 것은 좋지만 판타지 소설이나 무협지가 빠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평소 학교 공부 때문에 읽지 못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독서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데미안'(헤르만 헤세 지음)은 설명이 필요없는 필독서 중 하나. 주인공 심를

레어가 데미안을 통해 참다운 어른이 돼 가는 과정이 어려운 문제로 그려져 있다. 한국의 유명 중·단편 소설을 한데 묶은 '현대소설 너를 읽어주마'(전4권·즐거움 학교 펴냄)를 읽으면 한국 소설의 흐름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국어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청소년을 위한 삼국유사'(김해경 지음·서해문집 펴냄), '국어시간에 고전읽기 시리즈'(전10권·나래말 펴냄) 등도 방학을 이용해 읽기 좋은 책들이다.

◇고등학교생 = 광주시 교육청 이승우(47) 장학사는 "고등학교생들은 대입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독서에도 전략적인 필요가 있다"며 "일반적으로 교양을 넓힐 수 있는 도서는 기본이고, 대학 진학에 관련된 서적을 보는 면접할 때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논술을 위해서는 철학이나 논리학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책 읽은 후에는? 독후감 쓰고 만화 그리니 책이 마음속으로

방학 숙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독후감'이다. 독서를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은 뒤 느낌을 정리하는 것은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자칫 독후감을 강요할 경우 책 읽기마저 멀어지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독후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책을 읽은 다음 느낀 점을 글로 쓴 것이 독후감이려면, 그림이나 만화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일기에 그 날 읽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Chimdanil' (첨단일계공인중개사)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imbu' (금부부동산컨설팅)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Pam' (팜 부동산서비스)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ansul' (한솔공인중개사사무소)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eongeom' (정원공인중개사)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anil' (한일지도(주))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et' (에셋코리아 부동산컨설팅)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